

‘친밀한 제국’에서 온 『친밀한 제국』을 ‘친밀한 제국’에서 읽는다*

정기인**

1. 친밀성의 시각과 함의
2. 한국에서 식민지 말기를 바라보는 시각과 『친밀한 제국』
3. 이론의 과잉 또는 보편의 자리
 - 한국과 미국에서의 한국(문)학 연구는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가

국문요약

이 글은 Nayoung Aimee Kwon(권나영)의 *Intimate Empire: Collaboration & Colonial Modernity in Korea & Japan* (친밀한 제국: 한국과 일본에서 협력과 식민지 근대성)을 일제말기 한국문학 연구의 흐름 속에 위치시키며 여기서 제기하는 ‘친밀성’이라는 시각이 어떠한 함의와 한계가 있는지를 지적한다. 이 저서는 기존 연구들이 배후의 폭력을 부각시키면서 “친밀하게 공유”된 역사를 부인하려 하거나, 배후의 폭력 옆에 친밀한 관계를 동등하게 배치하는 것과는 달리, 이 둘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며 친밀성의 배면에 폭력이 있었고, 오히려 그 친밀성을 탐색함으로써 식민지(인)과 본국(인) 사이의 복합적이고 중층적이고 분열적이고

* 이 글은 동국대학교의 오테영 선생님, 미시건대학교의 손이레와 서울대학교의 김진규, 인아영, 이성근이 읽고 조언해 주어서 고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따라서 이 글 또한 ‘국제적’ ‘협력’의 산물인 셈이다. 이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도 모순적인 관계를 살피고 그 역사적 국면들을 재조명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렇게 이 책은 본국(인)과 식민지(인) 사이의 ‘트랜스콜로니얼’한 조우에서 ‘친밀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 겹의 강압과 회유 사이에서 갈등과 흔들림 속의 복잡한 표정인지를 잘 드러내준다. 어린 조선 유학생의 일본인에 대한 사랑과 절망(『愛か』), 아쿠다카와상 수상 후보를 둘러싼 일본 본국인들의 동정적 태도와 이에 대한 김사량의 심정과 그의 소설 속 인물들의 복잡한 심리, 식민지 조선인들의 일본어 글쓰기라는 것 자체에 내재한 양가성, 좌담회라는 형식 속에 내재한 폭력성과 결국 내선일체를 홍보하기 위한 들러리로 사용될 뿐인 식민지 조선인들의 억지웃음들 등에 내재한 ‘정동’(情動 affect)들을 끈질기게 추적함을 통해, 식민지(인)과 본국(인) 사이의 ‘협력’의 표면에 보이는 ‘친밀성’과 그 배면에 있는 제국의 강압성이 어떻게 복잡하게 얽혀져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정동을 식민지-제국이라는 단선적인 관계로 환원시켜 설명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책은 ‘친밀한 제국’인 미국에서 수행된 연구라는 점에서 한일의 국민국가적 경계를 벗어난 위치에서 일제말기 ‘포스트콜로니얼적 조우’를 조망할 수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론의 과잉을 보이며 한국문학 연구 성과들과 식민지 조선의 텍스트를 ‘서구’ 보편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방식으로만 사용하는 문제점을 보인다. 이는 저자가 비판하려 한, 일본 본국과 식민지 조선 사이의 불균등한 권력관계를 미국 학계와 한국의 학계라는 관계 속에서 반복하는 측면이 있다. 물론 한국의 ‘국어국문학’과 미국의 한국학 내의 한국문학 연구는 단순히 제국 본국과 식민지의 관계로 환원할 수 없는 중층적인 관계이며, 때로는 한국의 ‘국어국문학’이 제국 본국의 위치를 자임하기도 하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결국 한국과 외국에서의 한국문학 연구가 ‘협력’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특권을 내려놓고 서로를 환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친밀한 제국, 식민지, 제국, 탈식민주의, 한국학, 미국에서의 한국학, 대일협력, 저항, 권나영, 부인(否認), 자크 라캉, 정동(affect), 환대)

1. 친밀성의 시각과 함의

듀크대 권나영 교수의 *Intimate Empire: Collaboration & Colonial Modernity in Korea & Japan* (친밀한 제국: 한국과 일본에서 협력과 식민지 근대성)¹⁾은 식민지 조선과 일본의 “트랜스콜로니얼한 협력²⁾”, “번역된 조우”(encounter)를 다룬다. 이광수의 『愛か』(1장)부터 시작해서 1930년대 중반 식민지 조선에서 실행된 조선문학의 정의에 관한 논의 (2장), 김사량의 문학 (3, 4, 5장), 춘향전의 일본 공연 (6장), 조선문화의 장래 좌담회 (7장), 일본의 지역 담론(8장), 강경애 소설과 만주 (9장) 등 식민

1) Nayoung Aimee Kwon, *Intimate Empire: Collaboration & Colonial Modernity in Korea & Japan*,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books, 2015. 이하 본문에서는 『친밀한 제국』으로 약칭한다. 이는 Nayoung Aimee Kwon, “Translated encounters and empire: Colonial Korea and the literature of exile.” PhD diss., UCLA, 2007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2) 여기서 ‘transcolonial’의 의미는 식민지와 본국 간, 식민지와 본국의 경계를 ‘넘은’(trans)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식민적(colonial)이나 제국적(imperial)으로 명명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식민지(인)만의 문제이거나 제국(인)의 문제가 아니라, 식민지와 본국 ‘사이’의, 그 경계의 ‘넘나들’과 그들의 ‘조우’라는 의미를 강조하려고 한 까닭인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이 주목하고 있는 제국의 강압이라는 측면과 이것이 ‘민족국가(상해임시정부와 그 법통을 이은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이라는 점에서는 ‘collaboration’은 ‘부역(附逆)’이라는 부정적 의미로 번역될 여지도 있다. ‘공모(共謀)’라는 번역어도 이들이 결국 제국주의라는 폭력을 도모했다는 점을 부각한다면 가능한 번역어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collaboration은 제국(인)과 식민지(인) 사이의 보다 광범위한 일상적인 행위도 의미하기 때문에 보다 중립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는 협력(協力)으로 번역한다.

지 시기, 특히 1930년대 후반부터 1945년 해방/패전의 이르기까지, 즉 일제 말기 식민지 조선 작가들의 일본어 글쓰기가 주된 연구 대상이다.

이 저서는 한일 양국이 “친밀하게 공유하였지만 부인한(6)”³⁾ 식민지 경험의 의미를 탐구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한국이 식민지 경험을 ‘부인’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더 필요하다. 이 ‘부인(disavowal)’의 개념은 정신분석학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⁴⁾ 라깡은 성도착증의 메커니즘을 부인으로 설명하면서, 어머니와의 이차관계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정하는 것을 정신병적 주체, “이를 받아들이지만 이것이 주체에 남겨둔 결여를 견딜 수 없어서 근친상간을 욕망함으로써 결여를 다시 메우려 하는 주체⁵⁾”를 신경증자라고 설명하고,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성도착증자라고 주장한다. 성도착증자는 상징적 거세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남근이 없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불안함을 방어한다. 이 책은 이러한 라깡적 의미의 ‘부인’이 어떻게 식민지-제국의 관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것을 “인정과 부인의 양가적이고 불안정한 동요”(6)를 의미한다고 언급할 뿐이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석해보자면, 조선과 일본은 식민지-제국이라는 이차관계에서 분리되었지만, 이것이 각 주체들에게 남긴 결여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마치 그러한 식민지적 관계가 없었던 것처럼 부인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이것이 양국에서 도착증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적 의미일 것이다.⁶⁾

3) 이하 괄호 속의 숫자는 위 책의 페이지 수이다. 이 책은 이 글의 필자가 김진규, 인아영과 함께 현재 2017년 출간예정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 글에 사용된 번역은 정기인, 김진규, 인아영이 공동 번역한 초고에 기초하고 있다.

4) 이 책은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하고 있지 않지만, disavowal이 라깡적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5) 홍준기, 『자크 라깡, 프로이트로의 복귀』, 김상환·홍준기 엮음, 『라깡의 재탄생』, 창작과비평사, 2002, 124쪽.

이러한 정신분석학적 용어에서 강조하는 성적인 의미는 이 책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식민지 조선과 일본 사이의 친밀한(intimate) 관계의 의미와도 연결된다. 이 글에서 사용된 ‘intimacy’를 ‘친밀함’으로 옮긴 것은 영어를 한문맥의 어휘로 일방향으로 옮긴 것이 아니라 “친일(親日)”이나 “內鮮一體”라는 수사가 intimacy로 번역되고(8), 이것이 다시 ‘친밀성(親密性)’으로 재번역되면서, ‘親’이 잔존하고, ‘密’이라는 한자가 덧붙여졌다. 親이라는 글자는 자식을 아버지가 보살핀다는 의미에서 ‘친하다’라는 의미와 아버지나 부모라는 의미로 확장된다. 密이라는 글자는 신전 속 깊이 은밀하게 신이 모셔져 있는 모양에서 뻑뻑하고 촘촘하다는 의미부터 가깝다, 더 나아가 비밀로 하다, 은밀하다라는 뜻으로 파생되었다. 이는 intimacy가 함축하는 의미 중 하나인 성적인 관계와 연결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둘의 ‘도착중’적인 부인(否認)이 부모 자식 사이의 관계에서 기원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대응어라 할 수 있다.

결국 이 책은 식민지 조선과 일본 제국의 관계를 성적인 것을 함축하는 ‘친밀한’ 관계로 개념화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 책은 서두에서 이광수의 『愛か』에서 나타나는 조선 유학생과 일본 학생 사이의 동성애적 관계(7)를 식민지 조선과 일본의 ‘친밀한’ 관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이 책은 그러한 친밀성 배후에 식민지 조선과 일본 본국 사이의 구조적 폭력성이 본질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다.⁸⁾

6) 이 부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서 현재의 한일 관계를 어떠한 정체나 고착으로 해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신분석학적 처방을 내리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7) 프로이트는 동성애를 성대상 도착으로 보았다는 점에서도 의미심장하다. 지크문트 프로이트, 『정신분석강의』, 홍혜경·임홍빈 옮김, 열린책들, 2004 참조.

8) 이런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와는 다르다. 이 책은 ‘위안부의 증언을 총체적’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하면서 “동지적 상황을 그저 예외적”으로 배제한 것이 한일 간의 대립을 심화시켰다고 한다. 박유하, 『제국의 위안부』, 뿌리와 이파리, 2013, 134쪽. 여기서 “동지적 관계”가 문제적인 이유는 이 책이 묘사하는 ‘위

즉 제국의 강압과 식민지 조선(인)의 협력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이 책은 정면으로 응시하며, 이를 몰두해야 할 ‘난제’로서 제시한다.

전쟁기 제국 담론에서, “협력”, “자발성”, “협동”이라는 수사는 폭력, 강압, 검열, 징병제라는 실태를 전략적으로 삭제한다. 이러한 실태가 적극적으로 그러한 “협력”(내선일체)를 초래한 것이다. (..중략.) (호의적으로 보이는) 본국이 명성과 인정을 식민지 문화 생산자들에게 부여한 것 (예를 들어 『改造』나 아쿠타카와 상), 그리고 식민지 수집품, 죄담회, 공동 제작들의 발흥, 그리고 다른 형태의 초식민적인 번역들은 상호적인 유혹 그리고 그러한 협력들의 배경에 있는 폭력과 검열이 공존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제국의 언어가 식민적 근대 주체에게 상징하는 인정의 문제, 그리고 욕망과 강압 사이의 동요는, 이 난제의 중심에 있다. (200~201. (..중략..)은 인용자)

이렇게 “협력” 배후에 있는 폭력에 눈감지 않으면서도, 본국과 식민지 사이의 상호간의 유혹 내지는 “친밀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 이 책의 전략이다.

안부'와 일본군의 “동지적 관계”가 존재할 수 없었다거나 아니면 예외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둘의 관계를 규정하는 요소 중 비본질적이라는 데에 있다. ‘위안부’와 일본군의 관계의 본질, 즉 어떤 특정 ‘위안부’와 어떤 특정 일본군의 관계가 아니라, ‘위안부’와 일본군의 관계라는 규정 자체의 본질적인 측면이 있고, 그 본질과는 구분되는 다른 층위의 일반화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이것이 마치 여러 가지 '본질'들이 있는데, 한 측면만 부각했기 때문에 다른 측면을 부각한 이들의 반발과 대립을 심화시켰다는 식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오히려, ‘위안부’와 일본제국 사이의 본질적인 관계인 구조적 폭력성이라는 그 본질을 부각하고, 이를 고발해야 한다. 총체성이란 본질과 관계되는 것이지, 통계적으로 모든 특성들을 모아 놓은 것이 아니다. 때문에 ‘위안부’와 일본군의 관계를 ‘동지적’이라거나, 그들은 (자발적) ‘매춘부’라는 측면도 바라보아야지 위안부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본질을 무시하고 특수한 관계만을 지적함으로써, 구조적 폭력에서는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2. 한국에서 식민지 말기를 바라보는 시각과 『친밀한 제국』

그렇다면, 이렇게 식민지 말기 문학 텍스트와 이를 둘러싼 문학과 문화 현상을 ‘친밀성’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은 한국에서 식민지 말기를 바라보는 시각과 비교해보았을 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물론 이 책은 스스로를 한국의 식민지 말기 연구들과 연속선 위에 위치시키기보다는 서구⁹⁾적 근대를 보편으로 상정하는 근대성 논의를 해체하는 포스트콜로니얼 연구의 흐름 속에 자신을 위치시킨다. 즉, 식민지 조선과 일본 본국에 대한 “사례연구”를 토대로, ‘식민지 근대성’을 ‘친밀성’이라는 시각 속에서 재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서구 중심적인 근대성을 해체하겠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 목표이다. 여기서 식민지 근대성은 식민 통치 속에서의 근대성 경험으로 재정의되며, 특히 식민지의 문화적 생산자들이 제국의 언어로 쓴 텍스트를 사례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본국 일본(인)과 식민지 조선(인)의 “번역된 조우” 속에 나타나는 상호적인 영향, 특히 이의 파괴적인 영향을 부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장)

이는 한국에서 식민지 말기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목적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 책이 미국 대학의 교수로서 미국의 학계에서 활동하는 학자가 영어로 쓴 저서라는 점에서 한국의 학자가 한국어로 한국의 학계를 대상으로 쓰는 글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¹⁰⁾ 문제는 그 차이의

9) 이 글에서 서구라고 사용할 때는 지역적 서구, 즉 유럽과 북미를 의미하고, ‘서구’라고 할 때는 제1세계(북미, 유럽, 일본)의 담론 또는 제1세계가 아니더라도 제1세계에서 통용되고 활동하는, 예를 들면 호미 바바와 같은 ‘디아스포라 지식인’들의 담론을 포함한다. 진태원, 『지적하였듯이, 이러한 ‘서구’는 한국에서는 사실 ‘미국’과 동일어로 보인다. 진태원, 『비판적 사유의 미국화란 무엇인가』, 『황해문화』 85, 새얼문화재단, 2014.12, 212쪽.

10) 이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 글의 3절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것이다.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고, 이 글 또한 한국의 필자가 한국의 학계를 대상으로 한국어로 쓰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연구와의 비교를 통해서 이의 함의를 해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앞서, 이 책이 한일 양국이 “친밀하게 공유하였지만 부인한(6)” 식민지 경험의 의미를 탐구한다는 것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한국이 친밀하게 공유한 식민지 경험을 ‘부인’했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는 일제말기 ‘대일협력’한 작가들의 작품들과 특히 그들의 일본어 글들에 대해 지금까지 한국문학사나 공교육 등지에서 “암흑기”¹¹⁾라 지칭하며 조명하지 않았던 것¹²⁾을 의미한다. 그리고 실제로 남북한의 공식 역사나 일본 제국 당시의 공식 문서들은 ‘식민지’라는 단어를 회피하기도 하였다.¹³⁾ 그러나 이미 임종국은 1966년에 선구적인 『친일문학론』¹⁴⁾을 출간하였고, 80년대부터 “친일문학”선집¹⁵⁾들은 발간되었다. 하

11) 해방 직후 이미 임화는 이 시기를 ‘암흑기’로 명명하였고(임화, 『문화에 있어 봉건적 잔재와의 투쟁 임무』, 『신문예』 창간호, 1945.12.), 백철이 일제말기 문학을 ‘암흑기 문학’으로 규정한 이후(백철, 『조선신문학 사조사』, 수선사, 1947.) 오늘날까지 별다른 개념규정 없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익성, 『일제 암흑기 황순원의 창작 단편소설 연구』, 『동아시아문화연구』 61,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5는 ‘암흑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를 정의하지 않고 있다. 정종현은 한국의 문학사 서술에 조연현(1958)에서부터 권영민(2002)에 이르기까지 “암흑기 의식의 사례”를 정리하고 있다. 정종현, 『동양론과 식민지 조선문학』, 창비, 2011, 16~17쪽.

12)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은 일제말기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이 1930년대 문학에서 바로 해방이후의 문학으로 넘어간다.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1』, 민음사, 2002도 대일협력 문학을 다루지 않는다.

13) 식민이 아니라 점령(강점)이라는 개념으로 1910~1945년의 한반도 역사를 개념화하려는 남북한은 “훼손되지 않은 대한민국의 정통사”를 만들어내려는 욕망에서 비롯한 것이고, 일본에게 있어서 조선은 서구 제국에 있어서 시공간적 타자였던 식민지와는 다른, 즉 ‘타자’가 아닌 타자였다는 점에서 조선을 ‘식민지’로 개념화하는 것을 회피한 측면이 있다. 황호덕, 『점령과 식민』, 『벌레와 제국』, 새물결, 2011. 참조.

14) 임종국, 『친일문학론』, 평화출판사, 1966.

15) 대표적으로 김병걸·김규동 편, 『친일문학작품선집 1,2』, 실천문학사, 1986.

지만, 이들은 ‘친일’을 기준으로 이 시기 작품들을 재단하는 데 급급했다. 이는 근래에도 반복되었다.

일본이 식민지 한국에 대한 새로운 지배 정책으로서 내선일체론을 제기하게 되었을 때, 한국문학의 대응방식은 논리상 세 가지의 형태가 가능하였다고 할 수 있다. 문학을 통해 내선일체론의 허구성을 고발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방법이 있었고, 소극적으로 침묵하면서 문학 활동을 포기하는 대신 현실을 인내하는 방법도 있었다. 그리고 내선일체론에 동조하여 황민화에 동참하는 방법도 가능하였다.¹⁶⁾

위의 글은 일제말기에 가능한 문학을 3가지로 한정한다. 즉, 이 시기 문학은 적극적 저항, 소극적 침묵, 자발적 협력의 3가지 항 밖에 가능하지 않다.¹⁷⁾ 이러한 인식은 김재용도 되풀이 한다. 그는 ‘협력’과 ‘저항’의 문제틀로 일제말기 문학을 바라보면서 친일협력은 철저하게 내적 논리 하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한다.¹⁸⁾ 즉 이들 논의는 일제말기 조선 문학을 “식민주의에 대한 협력과 저항이라는 양극화의 양상”¹⁹⁾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연구들은 이를 비판하고, 근대적 경험의 복잡성과 증충성을 조명하고²⁰⁾ 식민지 말기 작가들을 욕망의 주체로 복원²¹⁾

16)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1』, 민음사, 2002, 444쪽.

17) 조진기도 마찬가지로의 인식 아래, 일제말기는 국책문학이 강요되던 시기였고 ‘노예의 문학’이라는 관점에서 1940년대 전반기 문학을 검토한다. 조진기, 『1940년대 문학연구의 성과와 과제 - 일제말기 친일문학 논의를 중심으로』, 『우리말 글』 37, 우리말글학회, 2006.

18) 김재용 외, 『친일문학의 내적 논리』, 역락, 2003; 김재용, 『협력과 저항 - 일제 말 사회와 문학』, 소명출판, 2004.

19) 김재용, 『협력과 저항 - 일제 말 사회와 문학』, 소명출판, 2004, 33쪽.

20) 김철·신형기 외, 『문학 속의 파시즘』, 삼인, 2001, 18쪽.

21) 한수영, 『친일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 2005.

하며 유동적이고 분열적인 근대적 주체의 정체성 구축과정을 추적하고²²⁾ 제국적 주체의 중층성과 혼종성을 지적한 바 있다.²³⁾ 이후의 연구들은 이러한 연구성과들 위에서 일제말기 문학을 보다 섬세하게 연구하면서, 이 시기 담론들을 동아시아 지역 질서와 근대 세계체제의 전환과 연관시켜 논의²⁴⁾하거나 근대국민국가의 논리 자체를 해체할 수 있는 계기로 사유하여 언어와 민족/국가, 생명정치, 테크네 등을 분석하고²⁵⁾ 젠더 정치의 차원에서 비판적으로 개입하고, 식민지와 신식민지 상황과 이에 대한 담론을 메타적으로 반성하는 논의²⁶⁾로 나아갔다. 즉, 권나영의 논의가 식민지와 제국 사이의 공모와 길항, 그리고 그 혼종성과 중층성을 지적하는 지점은 2000년대 중반 이후로 한국 학계에서 이미 공통적으로 전제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권나영의 논의는 식민지-제국 사이의 단선적 관계만 주목했다는 점에서, 이를 극복하고 있는 2000년대 후반 논의들보다 단순하게 여겨질 우려도 있다.

그럼에도 권나영의 논의를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식민지-제국의 관계의 중층성과 양가성을 정신분석학적 전제를 통해 개념화하고, 이의 분석을 위해 “정동affects”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는 점²⁷⁾과 이를 통해 (서구) 근대성 및 탈식민지 이론에서 주목하지 못했던 한국-일본 사례들

22) 윤대석, 『식민지 국민문학론』, 역락, 2006.

23) 정중현, 『동양론과 식민지 조선문학』, 창비, 2011.

24) 차승기, 『반근대적 상상력의 임계들』, 푸른역사, 2009; 오태영,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조선 로컬리티 - 식민지 후반기 여행 텍스트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25) 황호덕, 『벌레와 제국』, 새물결, 2011.

26) 권명아, 『역사적 파시즘 - 제국의 판타지와 젠더 정치』, 책세상, 2005; 권명아, 『식민지 이후를 사유하다 - 탈식민화와 재식민화의 경계』, 책세상, 2009.

27) 한국문학 작품의 ‘정동’ 내지 감정에 주목한 연구자로는 손유경과 권명아를 들 수 있다. 손유경, 『고통과 동정 - 한국 근대소설과 감정의 발견』, 역사비평사, 2008; 권명아, 『무한히 정치적인 외로움 - 한국 사회의 정동을 묻다』, 갈무리, 2012.

을 바탕으로, ‘서구 보편’을 비판하고 이를 재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²⁸⁾ 식민지에 매혹되면서도 타자화하고 이를 동화하려고 하면서도 차이화하는 일본 본국(인)과 제국의 일상적 강압에 억눌리면서도 제국에 매혹되는 식민지(인), 이 두 존재자들의 관계를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설명해줄 수 있는 정동이라는 이론적 어휘로 탐구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도이다. 왜냐하면 정동이란 신체가 세계에 속해있다는 표지이면서 동시에 속해 있지 않음의 표지이며 “힘들의 충돌”에 따른 “부대낌의 양태”로 정념의 동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²⁹⁾ 또, 한국에서의 논의들은 서

28) 박사논문 “번역된 조우와 제국: 식민지 조선과 추방의 문학”(Translated encounters and empire: Colonial Korea and the literature of exile)은, “재현의 난제”(conundrum of representation)를 중심으로 서구 모더니즘의 ‘재현의 위기’가 식민지라는 조건 속에서 어떻게 중층화되는지, 또 이는 서구 중심적인 논의들을 어떻게 해체하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책에서도 이 부분이 언급(1장)되지만, 제목과 서술방식 등에 의해 ‘친밀성’ 개념이 전면화된다는 차이가 있다. 즉 박사논문과 저서를 비교해보았을 때, 서론이나 결론, 본론의 내용들은 겹치는 부분이 많고 큰 틀에서는 유사한 논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극명히 달라지는 부분이 바로 이 ‘친밀성’ 개념의 전면화이다.

29) 이 책은 “정동affect”을 정의하거나 이 개념의 사상적 배경을 밝히지는 않는다. 한국에서는 이제 소개되기 시작하는 “정동”이라는 개념이 서구에서는 스피노자와 프로이트의 논의 등에서 비롯하여 1960년대에 본격화되고 1990년대에 재논의된 바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용되는 맥락은 매우 다양하다. 멜리사 그레그·그레고리 시그워스, 『미명의 목록(창안)』, 멜리사 그레그·그레고리 시그워스 편저, 『정동 이론』, 최성희·김지영·박혜정 옮김, 갈무리, 2015, 22~28면 따라서 이 글에서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동”이 어떤 외연과 내포가 있는지를 귀납적으로 살펴서 이와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는 문헌들의 도움을 받아 “정동”의 의미를 명료화하려고 했다. 실제 이 책에서 “정동”(affect)이라는 개념은 6부분에서만 사용된다. 강조는 인용자.

1) 이러한 새로운 시각에서 “친밀성”이라는 개념은 식민지기의 “내선일제”와 해방 이후의 “친일”이라는 수사로부터 역사적으로 파생되고 번역된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변화는 제국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이항대립적인 수사의 교착을 가로질러 친밀성을 욕망, 갈망, 애정이 알리는 정동들(affects)의 불안정한 동요로 재정의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욕망, 갈망, 애정은 제국을 뒷받침하는 더 잘 알려진 폭력과 강압과 공존했다. 이러한 정동들의 불안정한 동요는 한국과 일본에서 한반도의 식민지 역사를 기억하는 틀이 구성되면서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견고한 이분법이 표면화된 1945년 이후에는 폭력적으로 삭제되었다. (8)

구 보편을 비판하면서도, 이를 재구성하려는 이론적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권나영의 접근은 분명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과연 이 책은 이러한 목적을 적절히 달성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책이 한일 양국 근대사를 탐구하기 위한 시작의 자리에 놓은 이광수의 「愛か」를 다룬 1장과 3장에 걸쳐서 다룬 김사량의 문학 부분(3, 4, 5장)과 한일 양국의 좌담회 텍스트 비교를 다룬 7장의 내용을 검토해보자.

2) “뒤쳐졌다는 의식”은 한국 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비서구 세계에서 널리 공유된 **정동**이다. (39)

3) 몇 페이지 뒤에서, 뒤늦은 깨달음 속에서, 문화 충돌에 일반적인 **정동**(폭력, 증오, 취약성, 인종차별적 욕설)으로 가득 찬 하루오의 저항하는 장면이, 처음 보이는 것처럼 인종차별적 식민자와 차별받는 식민지인이라는 단순한 이항대립적 조우가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 (67)

4) 타자와의 유대는 경계가 넓지만 (먼 거리를 연결시키고) 개인적(경험의 **정동**으로 인해 단독적)이라는 것이 김사량이 룡잉쥬에게 보낸 편지에서 유사하게 함축되어 있다. 여기서 김사량은 본국의 조명을 받는다는 것의 불안을 식민지 대만의 동료 작가와 공유하고 있다. (71)

5) 이러한 서술되고 서술하는 분열적인 나는 모순적인 동화적 요구를 마주했을 때 식민적 주체들이 경험하는 고통스러운 식민적 **정동**의 전형이다. (76)

6) 나는 식민적 상호작용 속에서의 넓은 범위의 온전히 저항적이거나 대립적이지 않는 복합적인 **정동**들을 다루지만, 나는 비판적 개입을 통해 이러한 **정동**들을 제국적 논리를 비판하기 위해 대립적으로 읽는 시각을 제시하고 싶다. (213)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정동은 개인의 욕망, 갈망, 애정, 증오, 폭력성 등의 외연을 포함하는 어떤 상태를 의미하며 단독적이면서도 동시에 어떤 집단에서 공통성을 지니고 복합적일 수 있다. 이는 개인과 외부(타자 또는 공동체)와의 만남 속에서 촉발된다. 주체나 개인이 아니라 ‘정동’에 주목하는 것은 포스트-코기토 시대에 자아나 주체성의 문제를 넘어서기 위한 시도와 연결되며, 고정적인 주체-행위자의 단일한 목소리가 아니라 분열되고 중층적이며 혼종적인 목소리들을 포착하기 위한 접근법이라고 여겨진다. 이런 의미에서 멜리사 그레그, 그레고리 시그워스나 권명아가 제시하는 “정동”의 의미와 맞닿아 있다. (멜리사 그레그·그레고리 시그워스, 『미명의 목록(창안)』, 멜리사 그레그·그레고리 시그워스 편저, 『정동 이론』, 최성희·김지영·박혜정 옮김, 갈무리, 2015; 권명아, 『무한히 정치적인 외로움 - 한국 사회의 정동을 묻다』, 갈무리, 16-23쪽 참고.)

1장은 이광수의 『愛か(사랑인가)』³⁰⁾에서 나타나는 식민지 조선 유학생으로 보이는 문길/文吉(ぶんきち)의 일본인 학생 미사오에 대한 절절한 사랑 고백, 그리고 문길의 좌절을 소개한다. 이는 “한일 문화의 합류(5)” 지점이자, “애국적인 민족주의 지도자이면서 반역적인 친일 협력자”라는 이광수의 두 가지 명성과 함께 생각해볼 때, 식민지 조선과 일본의 제국적 조우에 내재하는 ‘친밀성’의 한 전형을 보여준다.³¹⁾ 이는 본격적인 연구라기보다는 이광수라는 식민지 조선 문학을 상징하는 인물이 ‘처녀작’으로 여긴 작품이 일본 본국과 식민지 조선의 ‘트랜스콜로니한 조우’의 ‘친밀성’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상징적으로 서두에 배치되어 있다.

3장부터 5장은 아쿠타가와상(芥川賞) 수상 배경 및 이를 둘러싼 일본 본국의 심사위원들과 김사량의 심리(3장), 김사량의 『光の中に』(빛 속으로) 텍스트 분석(4장), 일본 본국 문단과 식민지 조선 문단 사이의 식민지 작가이자 토착 “정보 제공자”로서의 김사량을 비롯한 일본어로 작품 활동과 번역을 하는 식민지 조선 작가의 비천한(object)³²⁾ 처지(5장)를 논의한다. 3장에 걸쳐서 김사량을 다룬 만큼, 이 저서의 핵심이 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김사량이 식민지 조선(인)과 본국 일본(인)사이의

30) 『白金學報』 9, 1909.12.

31) 『사랑인가愛か』를 식민지 유학생의 근대에 대한 열망과 이에 대한 좌절감과 연관시켜 논의한 경우로는 임영봉, 『이광수 문학과 식민지 근대 체험 - 초기 단편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3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3이 있다.

32) 불어 원래의 의미는 ‘비천한/비열한/비루한’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형용사로, 크리스테바가 『공포의 권력』에서 사용하면서 “상징계가 요구하는 적절한 주체가 되기 위한 즉 안정된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질적이거나 위협적으로 여겨지는 것들을 거부하고 추방하는 심리적 현상들”의 의미로 사용된다. (Kelly Oliver ed., *The Portable Kristev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7, p.19. 노엘 맥아피, 『경계에 선 줄리아 크리스테바』, 이부순 옮김, 앨피, 2007, 33면에서 재인용) 『공포의 권력』에서는 ‘아브젝트’로 음차되어 있다(줄리아 크리스테바, 『공포의 권력』, 서민원 옮김, 동문선, 2001.)

‘친밀’한 ‘트랜스콜로니얼적 조우’를 살피는데 핵심적인 인물, 텍스트, 사건인 이유는 1장에서 소개한 이광수의 『愛か』와 유사한 측면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소개되지 않지만, 이광수는 『백금학보』에 『愛か』라는 단편 소설을 투고하고는 일본인들이 과연 이를 어떻게 봐줄지, 이것이 게재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불안해했고, 이것이 게재되었을 때 매우 기뻐했다. 이광수의 일기를 살펴보면, 일본의 승인과 이로 인한 기쁨은 곧 실망으로 바뀐다.³³⁾

이러한 중층적이고도 혼종적인 심리는 김사량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김사량의 일본어 단편소설 『光の中に』는 일본 문단 굴지의 상인 아쿠타가와상의 수상후보로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일본의 승인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는 결국 수상하지 못했고 “2등”이나 “특별한 언급” 대상일 뿐이었고, 이는 일본 제국 속에서의 조선의 위치와 상응하는 자리였다. (49) 이에 대한 김사량의 반응은 순수한 기쁨만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도 뒤섞여있었고(42), 일본 심사위원들이 작품을 수상 후보로 선정하게 된 계기와 반응도 타자로서의 ‘조선’에 집중되었다.(49~53) 이 책은 이 부분에 주목하여 이를 일본 본국(인)이 식민지 조선(인)을 대하는 양가적 반응과 관련시킨다. 일본 본국에 동화하려 하면서도 배제하는, 즉 결코 일본 본국의 온전한 수상작이 아니라 수상후보로만 호명될 수 있는 위치가 바로 식민지 조선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둘러싼 식민지 조선과 일본 본국의 중층적인 반응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는데서 이 책은 빛을 발한다.

이 책은 이렇게 『光の中に』를 둘러싼 김사량과 일본 본국 비평가들의 양가적인 반응을 해석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텍스트 자체에도 주목한다.(4장) 일본 본국 비평가들이 이를 조선인을 대표하는 것으로 읽으려

33) 이광수, 『일기』, 『이광수전집』 19, 삼중당, 1963, 15~16쪽.

고 하지만, 실상 이 작품은 일본인으로 행세하고자 하는 식민지 조선인의 파편화된 주체성, 자기혐오, 자기부정 등, 즉 ‘트랜스콜로니얼적 조우’에 대한 식민지인들의 반응을 다루면서, 동시에 본국 일본 자체도 식민자와 식민지인들 사이의 접촉 지대 속에서 ‘일본인’성 자체의 차이가 인지하기 어렵게 되면서 제국의 차이화의 논리 자체도 위협을 당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³⁴⁾

34) 이러한 지점은 한국에서의 김사량 『빛 속으로』(이는 『빛 속에서』나 『빛 속에』 등으로 각기 논문에서 번역되었다. 각 논문이 사용한 제목을 사용한다.)의 연구 경향과 만나는 부분과 거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 권나영 박사논문과 저서와의 연관성을 따지기 위해서, 박사논문이 제출된 2007년 이후에 제출된 한국의 논문들을 살펴보았다. 김사량과 그의 문학에 나타나는 주체의 중층성, 혼중성, 경계성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연속성이 있는 연구들로는 전설영, 『김사량 문학 연구: 주체의 이동을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8; 임형모, 『욕망의 간접화와 형이상학적 욕망의 실제 - 김사량의 『천마』와 『빛 속으로』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기술』 7, 단국대 한국문화기술연구소, 2009; 김석희, 『식민지인의 가책과 폭로의 구조 - 김사량 『빛 속으로』를 중심으로』, 『일어일문학연구』 71권 2호, 한국일어일문학회, 2009; 김주리, 『동화, 정복, 번역 - 한국 근대 소설 속 혼혈 결혼의 의미』, 『다문화콘텐츠연구』 3, 중앙대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0; 김석희, 『식민지인의 윤리적 분열과 내러티브: 김사량 『빛 속으로』에서 『천마』로』, 『일본문화연구』 35, 동아시아일본학회, 2010; 이동재, 『김사량 문학 연구: ‘번역자 위치’와 ‘욕망’을 중심으로』,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2013; 김지영, 『제국과 식민지, 일상에서의 혼중/혼혈과 분열증 - 장혁주 『우수인생』, 김사량 『빛 속으로』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41, 한국현대문학회, 2013이 있다. 조선 ‘봄’ 현상과 관련하여 김사량과 루잉쥬를 ‘경계의 사유에서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연속성이 있는 경우는 김계자, 『근대 일본문단과 식민지의 문학자 - 김사량과 루잉쥬를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22, 경원대 아시아문화연구소, 2011. 반면에 권나영의 연구와 일정한 거리가 있는 연구들은, (『빛 속에서』)를 근대성 김혜연, 『김사량 작품 연구: 일제 말기 이중 언어를 중심으로』,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2011이나 조선적 정체성 추구로 결론내리는 것이다. 후지네 마유코, 『金史良の『光の中に』研究: 人物を中心に』,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홍희정, 『김사량의 일본어 소설 고찰: 『빛 속에서』를 중심으로』, 한국외대 석사학위논문, 2012. 또는 식민지 현실에서의 ‘자기윤리’ 박종명·김주영, 『식민지 지식청년의 “자기윤리” - 김사량의 『빛 속으로』를 중심으로』, 『일본어교육』 55, 한국일본어교육학회, 2011. 서발탄에 주목하여 식민주의의 구조 자체를 재국축하는 관점이라는 논의도 있다. 서영인,

5장에서는 일본어로 일본 본국인을 위해 쓰는 식민지 조선인(김사량으로 대표된다)과 그들의 텍스트를 ‘비천한(bject)’ 상태로 묘사하며 이를 탐구한다. 김사량에 따르면 일본어로 글을 쓰는 식민지 조선 문인은 조선어와 식민지 독자를 포기하는 희생을 감수하며 일본과 전세계에 “조선의 문화, 생활방식, 정서”를 알리려는 동기를 갖고 있다. 이는 ‘식민지 조선’을 위해 ‘일본’에게 읽히게 쓴다는 것, 즉 식민지의 비참한 현실을 전달하면서 동시에 제국의 소비를 위한 ‘진실한’ 변형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모순적이며 또 분열적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김사량의 의도를 최대한 식민지 조선(인)의 입장에서 해석한다면 이는 일본어를 도구로 하여 민족의 요구를 대변하는 것이 될 것이지만, 제국의 입장에서는 차별을 위해 식민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도구로 동원되고 이용당할 수 있는 양가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86~87)

이러한 일본과 조선의 트랜스콜로니얼한 조우 및 이들의 ‘친밀성’과 이의 배후에 있는 제국의 강압은 7장에서 “조선문화의 장래”에 관한 좌담회에 대한 분석에 잘 드러난다. 이 글은 좌담회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부터 시작한다.

좌담회가 친밀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기본으로 하고, 좌담회 형식에 의해

『서발턴의 서사와 식민주의의 구조』, 『현대문화이론연구』 57, 현대문화이론학회, 2014. 문제적인 것은 이렇게 김사량의 『빛 속으로』를 연구 대상으로 다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권나영의 2007년도 박사논문을 참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각주나 참고문헌 어디에도 권나영의 박사논문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 중 일부 논문만이 한국에 번역된 권나영, 『제국, 민족, 그리고 소수자 작가 - 식민지 사소설과 식민지인 재현 난제』, 와타나베 나오키 외 편, 『전쟁하는 신민, 식민지의 국민문화 - 식민지 말 조선의 담론과 표상』, 소명출판, 2010을 참조하고 있을 뿐이다. 반면에 권나영의 저서는 2008년 이후 김사량에 대한 한국에서의 연구를 참조하고 있다. 다만 이는 본문이 아니라, 참고문헌이나 각주를 통해 소개될 뿐이다. 이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 글의 3장에서 더 다루어질 것이다.

환기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그대로 제시된다는 설명을 곧이곧대로 믿기보다는, 좌담회가 그러한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방식을 보다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좌담회가 1930년대 후반의 일본 제국 도처에서 선전의 목적으로 전용되었던 방식에 주목해볼 때 좌담회의 분위기가 갖는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재검토할 필요는 더욱 명확해진다. (133)

좌담회는 ‘친밀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 해당 주제의 권위자들을 불러서 자연스러운 대화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이미 도출된 합의를 구성하고 수행”하는 것이며, 이러한 형식에서는 “진정한 의견 차이가 표출되기” 어렵고, “사상은 쉽게 소화될 수 있는 진부한 내용과 잘 포장된 인상적인 어구들로 파편화된다”(135). 이러한 특성들은 식민지 조선과 일본 지식인들의 좌담회가 열리게 된 이데올로기적 이유를 보여준다. 이들의 ‘친밀한’ 만남의 형식 자체가 ‘내선일체’를 보여주는 것이며, 그 와중에 의견 차이들은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용해되고 진부화되고 만다. 그리고 결국 좌담회의 목적이 의견을 수렴해서 ‘조선문화의 장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본국(인)에 의해서 이미 결정된 답을 되풀이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음을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좌담회 형식은 이 책이 지속적으로 부각시키며 동시에 비판하는, ‘친밀성’이라는 갈망과 강압이라는 폭력이 얽혀있는 모습을 잘 드러내준다.

또 실제 좌담회 내용 분석에 있어서, 이 좌담회가 제국 일본의 영토적 팽창과 이에 따른 조선의 역할 변화와 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내선일체’라는 구호의 중의성과 이것이 결국 조선인들을 동원하게 하는 계략으로 기능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140~141) 친밀한 듯 보이며, 식민지 조선인과 일본 본국인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좌담회’이지만, 이것은 결국 식민자와 피식민자 사이의 “통약불가능성”(147)

을 보여줄 뿐이다.

특히 이 좌담회가 식민지 조선의 『京城日報』(1938.11.29.~12.8)에 연재되었고, 또 일본 내지의 『文學界』(1939.1)에 다시 게재되면서 차이가 생긴다는 점에서 흥미롭다.³⁵⁾ 이 둘의 차이를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식민지 조선에서 간행되는 『경성일보』판보다 일본 본국에서 발행되는 『문학계』판에서 일본 제국의 논리가 더 철저하게 논증되는 것처럼 편집되는 과정을 밝혀낸다.

이렇게 이 책은 본국(인)과 식민지(인) 사이의 ‘트랜스콜로니얼’한 조우에서 ‘친밀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 겹의 강압과 회유 사이에서 갈등과 흔들림 속의 복잡한 표정인지를 잘 드러내준다. 어린 조선 유학생의 일본인에 대한 사랑과 절망(「愛か」), 아쿠다카와상 수상 후보를 둘러싼 일본 본국인들의 동정적 태도와 이에 대한 김사량의 심정과 그의 소설 속 인물들의 복잡한 심리, 식민지 조선인들의 일본어 글쓰기라는 것 자체에 내재한 양가성, 좌담회라는 형식 속에 내재한 폭력성과 결국 내선일체를 홍보하기 위한 들러리로 사용될 뿐인 식민지 조선인들의 억지 웃음들 등에 내재한 ‘정동’들을 끈질기게 추적함을 통해, 식민지(인)과 본국(인) 사이의 ‘협력’의 표면에 보이는 ‘친밀성’과 그 배면에 있는 제국의 강압성이 어떻게 복잡하게 얽혀져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

35) 이러한 차이는 권나영이 처음 지적한 것이다. 이는 신지영, 『부/재의 시대』, 소명출판, 2012과 박광현, 「경성좌담회 다시 읽기」, 『일본연구』 62, 한국외대 일본연구소, 2014에서 다루어졌다. 특히 박광현은, 권나영과 신지영이 『문학계』 판본이 『경성일보』 판본의 가필이나 수정으로 보고 있는데 반해서, 『문학계』 판본은 『경성일보』 판본을 의식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만약 박광현의 주장이 옳아서, 『문학계』 판본이 『경성일보』 판본과 독립적으로 발표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둘 사이의 차이는 부정할 수 없고, 또 내지에서 출판되는 『경성일보』판과 일본 본국에서 출판되는 『문학계』판의 차이를 각 그 지면이 놓인 성격에 따라 읽으려는 시각은 여전히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고 이를 바탕으로 보편으로 간주되어 온 서구 모더니즘의 “재현의 난제”라는 문제를 식민지 조선과 일본이라는 서구 근대성이나 탈식민주의 이론에서 배제되어 온 예를 통해서 비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구 모더니즘은 재현의 난제를 보편적인 것이라 주장하나, 이는 결코 식민지 근대적 주체의 경험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식민지 조선의 예를 바탕으로 “재현의 난제”는 이제 식민지인 제국의 언어로 쓰면서 제국의 통치 아래 생산되어 식민적 경계를 가로지르면서 생기는 역설과 모순과 연결될 수 있게 된다. (1장) 결국 서구 모더니즘에서 논의하는 근대성의 보편적 경험이라 주장되는 “재현의 난제”를 식민지-제국의 관계 속에서 전유하는 것을 통해서 보편적 경험이라는 주장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식민지-제국의 문화적 재현들을 의미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개인 주체의 혼종적이고 중층적인 정동, 식민지와 식민본국이라는 단선적인 구조로 환원된다는 아쉬움도 있다. 식민지 조선(인)과 일본 본국(인) 사이의 ‘친밀한 포스트콜로니얼한 조우’를 주목한다고 할 때, 이것이 결국에는 제국의 욕망과 이에 대한 식민지 조선인들의 응답에 초점이 맞추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서로 ‘친밀’하여 매혹을 느꼈지만 이러한 정동에는 제국의 강압이라는 구조적 폭력이 전제되어 있었다는 주장은 어쩌면 ‘상식’적인 결론으로 보인다. 만약 문제가 식민자와 피식민자 사이의 “통약불가능성”(147)이라면, 이는 친밀성은 결국 표면적인 것이고,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불가능했다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책의 시각에서 확장 가능한 지점은, 일제말기 ‘정동’의 문제를 식민지-제국이라는 단선적 틀을 벗어난 지점에서 의미화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동이 “신체가 세계에 속해있다는 표지이면서 동시에 속해 있지 않음의 표지”라고 할 때, 이는 제국-식민지라는 세계에 속해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정념도 의미하지만, 이로만

환원될 수 없는 개인의 단독성과 개인이 속해있는 사회의 다른 층위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³⁶⁾

3. 이론의 과잉 또는 보편의 자리

-한국과 미국에서의 한국(문)학 연구는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가

『친밀한 제국』을 한국에서 한국문학 연구하는 입장에서 읽을 때 두 가지 지점이 문제적이다. 첫째는 이 글이 스스로를 외국의 한국학 연구나 외국의 다른 연구들(주로 서구이고 간혹 일본의 연구들)의 연장선상에만 자신을 위치시킨다는 것이다.

이의 대응으로, 비서구 예술가들에 의해 생산된 동시대의 모더니스트의 형식들을 기록하려는 많은 중요한 시도들이 있어왔다. 예를 들어, 세이지 리피트(Seiji Lippit)의 『일본 모더니즘의 지형들Topographies of Japanese Modernism』과 윌리엄 J. 타일러(William J. Tyler)에 의해 편집된 선집 『모단이주무 Modanizumu』는 일본의 모더니즘의 사례를, 리어우판(Leo Ou-Fan Lee)의 『상하이 모던 Shanghai Modern』과 슈메이스 슈Shu-mei Shih의 『근대의 유혹』은 중국의 사례를, 더 최근에는 테오도르 휴즈(Theodore Hughes)의 『냉전시기 남한의 문학과 영화Literatre and Film in Cold War South Korea』와 크리스토퍼 헨스컴(Christopher Hanscom)의 『진짜 근대The Real Modern』이 한국의 사례를 연구하였다. 이러한 중요한 시도들에 뒤따라, 이 책은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우리가 식민지 근대라는 교착의 중심에 제국적 언어와 번역의 정치학을 놓는다면, 예술의 내용과 형식의 특징은 제국적인 분수령을 넘어 어떻게 번역될까? (11)

36) 이런 점에서 앞서 언급한 황호덕, 권명아 등의 논의가 의미가 있다. 황호덕, 『벌레와 제국』, 새물결, 2011; 권명아, 『역사적 파시즘 - 제국의 판타지와 젠더 정치』, 책세상, 2005; 권명아, 『식민지 이후를 사유하다 - 탈식민화와 재식민화의 경계』, 책세상, 2009 참조.

이러한 태도는 한국에서 시도된 한국문학에서 “모더니스트의 형식들을 기록하려는 많은 중요한 시도”에 대해서는 괄호 속에 넣는다. 오직 영어로 된 연구들만이 논의의 대상이 된다. 혹은 한국에서의 연구들은 ‘중요한 시도’가 아닌 것으로 상정된다. 이러한 태도의 연장선상에서 이 책은 매 장에 ‘서구의 논의를 일종의 이론 내지는 연구의 시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론으로 사용한다. 즉 서구가 보편의 자리에서 ‘이론’으로 기능하고, 식민지 조선의 텍스트는 이의 한 예로서 기능한다. 그런데 이 저서에서 인용하는 이론이나 시각이 텍스트의 새로운 측면을 어떻게 밝혀주는지 모호한 때도 많다. 한 예로 7장에서 ‘엿듣기/다시듣기’라는 리차드 악젤(Richard Aczel)의 논의를 가져오는데, 사실 이 ‘엿듣기/다시듣기’라는 이론이 부재하여도 저자가 7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논의는 그대로 성립가능하다. 이론의 과잉이 의심되는 지점이다.³⁷⁾ 그렇다면 이러한 이론의 과잉은 단지 저자의 현학 때문인가? 나는 이것이 미국에서의 한국학의 특성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한국문학 연구는 그 분과학문의 기원³⁸⁾과 현재

37) 이와 대비적으로, 이 책의 핵심적인 시각을 형성하는 정신분석학이나 정동에 대해서는 이론적 논의가 소략하다. 오히려 정신분석학적인 논의와 정동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서 텍스트를 보다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38) 미국 대학 내 지역학 프로그램은 적국 정보 파악을 위해 2차 세계대전 전후로 생겨났고, 현재도 미국의 이익에 보탬이 되도록 특정 지역에 대한 지식을 생산하는 학문체계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마이클 D. 신, 『미국 내 한국학 계보』, 『역사비평』 59, 역사비평사, 2002, 77면 참조.) 반면에 식민지 조선에서의 한국문학 연구가 제도권에서 시작된 것은 경성제대의 조선어문학과이며, 이 또한 “국가의 수요에 응하는 학술기예를 교수함과 동시에 그 온오를 고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국대학령. 이준식, 『일제 강점기의 대학 제도와 학문 체계 - 경성제대의 ‘조선어문학과’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61, 한국사회사학회, 2002, 193면에서 재인용)라는 목적 의식하에 설립되었다는 점에서는 미국 내 한국학 연구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는 현재에 이르러서도 학과의 홈페이지 등에서 ‘민족의 ‘공지’를 위해 ‘민족 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들이 통용되고 있다. 일례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학과소개를 보면, “우리

제도에서 한국에서의 한국문학 연구와 차이가 나고 이러한 차이들은 구체적인 연구물들에도 반영이 된다. 미국 대학 내에서는 별도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단위로서의 한국학과가 존재하지 않으며³⁹⁾, 따라서 미국에서 한국(문)학을 연구하여 박사논문의 심사를 받을 때도⁴⁰⁾, 한국문학은 물론이고 한국학이 아니라 다른 전공의 심사위원에게 지도를 받게 되고, 박사과정 때나 그 이후에도 ‘범아시아’연구자들을 대상독자로 하여 글을 쓰게 되며, 수업도 이러한 ‘범아시아’ 연구에 관심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때문에 권나영은 ‘범아시아’ 연구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에 의해 훈련 받았고, 이 책도 그러한 대상 독자를 상정하고 쓰였기 때문에, 이들이

말과 우리 문학을 연구하여 민족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이다. 이를 위해 국어의 구조와 역사를 밝혀내는 한편, 지난 시대와 이 시대의 문학을 그 시대정신과 사회 배경 속에서 이해하고 그 가치를 탐구한다.”라고 되어있다. 즉 ‘계승과 발전이 목표이고 이의 ‘가치’를 탐구하는 것이다. 이는 자명하고 ‘가치’중립적인 듯 보이지만, 선택과 배제를 함축한다. 계승과 발전시킬 부분이 아니면, 가치가 없다면, 연구할 대상이 아니다. 이는 다른 대학 국어국문학과와 학과 소개도 마찬가지로이다. 예를 들어 연세대 국어국문학과와 학과 소개에는 첫째, 우리 말, 우리 문학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을 통하여 민족문화에 대한 이해와 민족적 정체성을 함양한다. (...) 한국문학의 세계화 및 위상을 공고히 하도록 한다.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도 ‘민족의 긍지, 한국의 미래’라는 부제를 달고 있듯이, 국어국문학과는 스스로의 소개를 ‘위상’이나 ‘긍지’와 밀접하게 연결시킨다. 또 이는 필자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뒷받침된다. 논문 심사 자리에서 빈번히 나왔던 심사교수들의 질문은, “그래서 이 작품이 ‘좋은’ 작품인가?”였다. 즉 예술적으로 뛰어난가가 학문적 대상으로 성립하는가를 담보하였고, 이는 국문학의 ‘위상’이나 ‘민족의 ‘긍지’와 연결되며, ‘민족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다.

39) 하버드는 동아시아언어문명학(East Asian Languages and Civilizations)이며 UCLA는 아시아 언어와 문화(Asian Languages & Culture), 듀크대는 아시아와 중동학(Asian & Middle Eastern Studies)이다.

40) 권나영의 박사논문 심사위원들은 각각 Namhee Lee(한국 근대사 전공), Seiji M. Lippit(일본 근대 문학과 영화 전공), Jinqi Ling(미국 아시아 문학전공), Peter H. Lee(한국문학 전공)이다.

친숙하게 공유할 수 있는 영어로 쓰인 ‘서구’의 이론을 매개로 소통하고자 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제국-식민지의 구도와 유사하게, 보편으로서의 서구와 그 사례로서의 특수라는 비서구라는 도식이 반복된다는 점이 문제적이다. 역설적이게도, 이 책이 의도하는 바가 바로 그 ‘서구’의 ‘보편성’을 의심하고 이를 식민지 조선과 본국 일본이라는 ‘서구의 보편적’이론들이 잘 다루지 않는 사례를 바탕으로 이 보편성의 허위성을 지적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러하다. 서구 ‘보편’이론을 해체하기 위해, ‘식민지 조선’을 가져왔지만, 이는 다시 ‘서구 보편’의 ‘이론적’ 언어들의 ‘방법론’ 내지는 ‘시각’으로 서술된다.⁴¹⁾

더 나아가 이 책이 “사례 연구”(10)로 식민지 조선의 텍스트와 맥락들을 사용하는 것 자체도 문제적이다. 이는 이론과 연구에 대한 시각이 ‘서구’의 포스트콜로니얼적 시선과의 대화 속에서 선행하고, 그 후에 식민지 조선이 대상 텍스트로 선정되고, 이러한 선행적 이론이나 시각이 텍스트에 투영되는 것 같이 보인다. 즉 ‘식민지 조선’은 특수의 한 예로서 기능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구 보편’이론이 해체-재구성된다는 ‘보편’의 서사가 작동된다. 예를 들어 김사량의 일본어 글쓰기와 이의 의미를 논의하면서 이는 곧바로 식민지 조선의 일본어 글쓰기라는 문제로 연결되고, 이는 이 책 속에서 비서구 ‘식민지’인의 비서구 제국의 글쓰기의 한 예로 활용되고, 이는 결국 ‘서구’의 논의를 비판하는 것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한국에서의 연구들, 일례로 『일제 말기 한국 작가의 일본

41) 여기서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이 보편인가 아닌가보다는, 보편이라는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주체가 거론하는가이다. 특히 권나영과 같은 미국 유수 대학의 교수라는 위치는, (물론 디아스포라적인 배경을 감안해도, 혹은 이 때문에 더욱더) 이에 대해 더욱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내가 문제제기하는 지점은, 한국의 논저들의 문제의식들과의 ‘이론적’ 대화 속에 논의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한국의 자료들이 저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례연구’가 아니라, 풍부한 사례들을 유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장을 도출하는 방식이 필요했다는 점이다.

어 글쓰기론』⁴²⁾이 귀납적 사례들을 유형화하고 이에 대한 각각의 섬세한 의미부여 같은 ‘중간’ 단계를 수행한다면, 이 저서는 자신이 ‘식민지 조선’에서 선택한 ‘일부’ 사례들이 식민지 조선 사례 전체의 일부인지, 혹은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는지, 또는 다른 한국의 사례들과의 차이는 무엇인지를 검토하지 않고, 몇 개의 예를 토대로 바로 식민지와 제국의 ‘트랜스콜로니얼적 조우’에 대한 보편적 분석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물론 이는 앞서 지적했지만, 이러한 사례들의 분석을 토대로 ‘서구 보편’을 해체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몇가지 ‘반례’들을 분석함으로써 서구 보편성을 해체한다는 점에서는 유의미하다. 그러나 여전히 ‘식민지 조선’의 사례들이 충분히 탐구되고 분류하면서 각각의 공통적인 특질과 이들 사이의 차이에 주목한 이후에 이를 토대로 일반화된 ‘식민지 조선과 일본 본국 사이의 “트랜스콜로니얼적 조우”를 이론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케이스 스터디’로 활용한다는 점이 문제적이다.

이는 이 책이 인용하고 있는 *Imperial Leather* (203~204면)에서 논하고 있듯이, 미국의 신제국주의가 작동하는 모습은 아닌가 우려된다. 이러한 보편을 주장하는 서구, 특히 세계 ‘공통어’(lingua franca)인 영어를 매개로한 미국과 한국의 관계야말로, 새로운 ‘친밀한 제국’이며, 이 책도 어쩔 수 없이 이 구도 안에 놓여있는 것이 아닐까?⁴³⁾

특히 다음과 같은 대목을 곱씹을 필요가 있다.

우리 메트로폴리탄 비평가들은 우리 자신의 특권적 위치가 소수자의 텍스트에 마주했을 때 억압적이라는 것을 고려하는 데 실패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찬가지로

42) 김윤식, 『일제 말기 한국 작가의 일본어 글쓰기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43) 김종영은 한국 사회를 지배하면서 미국 학계에 종속되어 있는 미국 유학파의 식민성을 지적한다. 이는 반대로는 미국 학계의 제국성이기도 하다. 김종영, 『지배받는 지배자 - 미국 유학과 한국 엘리트의 탄생』, 돌베개, 2015.

지의 오래된 역학을 재생산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을 바꾸거나 포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특권적 위치를 포기하고자 하지 않는다. 만약 소수자의 텍스트가 민족적 알레고리로 읽힐 수밖에 없다면, 아쿠타카와상 심사위원과 1세계의 비평가 제임슨이 주장했듯이, 이는 메트로폴리탄의 비평적 조우에서는 그렇게 밖에 읽힐 수 없기 때문이다. (58)

이 대목은 원래, 김사량의 텍스트의 ‘특수성’을 식민 본국의 비평가들이 ‘보편성’으로 성급히 환원하는 것을 비판하는 대목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로 ‘메트로폴리탄 비평가’ 즉 ‘제국’ 본국 중심의 비평가들을 호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이 가정하고 있는 독자나 스스로의 위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며, 또 이러한 비판이 이 책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적이다. 저자도 지적하듯이, 담론적 영향력이 있는 학자들이 대부분 “미국에 안락하게 자리잡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발화 위치 자체를 정당화하고 있다”(207)는 것에 저자도 해당되지 않는가를 반문하고 싶은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포스트콜로니얼’한 연구라면, 이러한 ‘친밀한 제국’에서의 발언의 위치에 대해서 반성해야 하고, 이의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의 담론효과나 담론의 배치를 살펴보는 일일 것이다. 여전히 본문은 ‘서구’의 이론이 지배적이고 한국에서의 연구는 한국의 상황을 소개하는 식⁴⁴⁾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에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이유도

44) 예를 들어 이 책의 2장에서는 한국에서의 ‘친일’에 대한 연구가 소개되고 있지만, 이는 이러한 연구들과의 비판적 대화를 위해서라기보다는, 한국에서는 이렇게 연구가 되고 있다는 ‘토착 정보제공자’로서 기능하는 것처럼 보인다.

“해방이후 남북한 모두에서, 이러한 글(일제말기 식민지 조선인의 일본어 글들 - 인용자)들은 반세기 이상 문학사에서 체계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제외되거나 소수화되었다.(19)” 이후 임종국, 백철 등의 연구를 소개한다. “최근에서야, 세기가 지나서야, 임종국의 작가와 텍스트를 판단하는 명백하고도 함축적인 분류 기준이었던 ‘저항’과 ‘협력’이라는 엄격한 이항대립이 마침내 학자들에 의해서 도전받기 시작했다. (...) 보다 섬세하고 열린 대화, 특히 한일 간의 엄격한 경계를 가로지르는 대화는 새롭게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두 언어에 능통한 학자들 중 복잡

이 때문이다. 이러한 배치는 독자들로 하여금 여전히 한국에서의 한국문학 연구가 아니라 '서구'에서의 한국문학이나 아시아학 연구들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여기게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렇게 '이론' 또는 보편의 자리에서 발화하면서, 다른 미국에서의 한국학이나 '서구'의 탈식민주의 이론을 본문에서 핵심적으로 논의하고 이들과의 연속성만을 부각하고, 본 저서와 연구대상을 긴밀하게 공유하는 한국에서의 한국문학 연구는 부차적으로 논의하는 일은 과연 '제국'과 '식민지'라는 학문장에서의 권력관계를 재생산하는 일과 전혀 상관없는 일일까를 되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비판들은 이 책이 발화하고 있는 지점이 미국에서 서구문학 연구에 비해 주변화된 아시아문학, 더 주변화된 아시아 근대문학, 그 중에서도 주변화된, 즉 3중으로 주변화된 한국 근대문학 연구⁴⁵⁾라는 점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다. 앞서 지적한 미국 내 대학제도 자체가 '범아시아 언어와 문화' 또는 '범아시아 지역' 자체를 연구대상으로 한다⁴⁶⁾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서처럼 한국문학 자체만을 대상으로 이를 분류하고 분석하고 의미화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미국에서의 한국학은 한국에서의 한국문학 연구와 학문 자체의 목적과 의도 다르다. 미국에서의 한국문학 연구 자체가 존재의의를 갖기 위해서는 이를 '범아시아 언어와 문화'나 '범아시아 지역'에 대한 유의미한 담

한 학문적 그리고 정치적 영역을 탐구하려는 자들은 여전히 소수이기 때문이다."(20~21쪽) 이후 김윤식, 한수영을 소개한다.

45) 레이 초우, 『미국대학 내 아시아 문학교육의 정치학』, 장수현·김우영 옮김, 『디아스포라의 지식인 - 현대 문화연구에 있어서 개입의 전술』, 이산, 2005 참조. 여기서 레이 초우는 서구 문학에 비해 주변화된 아시아문학연구와 이중으로 주변화된 아시아 근대문학 연구를 이야기하며, 미국에서 동북아 아시아 문학 연구 중 중심이 중국과 일본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미국에서 한국 근대문학을 전공한다는 것은 삼중으로 주변화된 위치이다.

46) 앞서 언급했지만, 권나영 교수가 몸담고 있는 Duke 대학은 '아시아 및 중동학'이라는 편제로 과를 운영한다.

론임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또 이 ‘범아시아 언어와 문화나 ‘범아시아 지역’에 대한 유의미한 담론은 결국 ‘서구’의 담론을 어떻게 지탱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가와 연결될 것이다. 그럼에도 비판적으로 개입해야 할 지점은, 이 담론의 배치나 담론이 발화되는 맥락 자체가 담론이 비판하고자 하는 권력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강화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동시에, 한국의 한국문학 연구가 스스로를 ‘중심’으로 자인하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게 한다. 한국학, 적어도 한국문학 연구에 있어서는 일방적으로 미국은 제국 본국, 한국은 식민지라는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한국문학 연구자들은 외국의 한국문학 연구에 대해 한국의 국어국문학과 한국문학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⁴⁷⁾ 이는 전도된 형태로, 한국의 국어국문학과가 ‘중심’이며 미국의 한국문학 연구는 ‘변방’임을 전제한다. 그리고 정작 한국문학 연구는 ‘서구’의 인문학 이론들을 무수하게 참조하면서도⁴⁸⁾, 미국의 한국학 연구는 참조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⁴⁹⁾ 더 나아가 ‘서구’가 아닌 다른 언어

47) 수차례의 ‘국제한국학’ 교류 프로그램들에 참여해왔던 필자로서는, 늘 미국의 한국학 대학원생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고는 했다.

48) 황호덕은 『상허학보』와 『민족문화사연구』를 대상으로 전자는 1993년 창간호부터 2011년까지 395편과 후자는 1991년 창간호부터 2011년까지 근현대문학 관계 논문 450편을 대상으로 “외래 문헌 인용수, 피인용 외국저자 및 저서명, 피인용 저자들의 출신국가 및 활동국가, 키워드 및 인접키워드를 가공한 키워드군 연구 대상 작가” 등을 통계화했다. (황호덕, 『외부로부터의 격발들, 고유한 연구의 지정학에 대하여: 한국현대문학연구와 이론, 예비적 고찰 혹은 그래프, 지도, 수행도』, 『상허학보』 35, 상허학회, 2012, 106쪽.)

49) 일례로 2012~2014, 3년간 서울대와 고려대의 현대문학 박사학위논문(서울대는 2012~2014, 고려대는 2012년도) 38건 중에 외국의 한국문학 박사논문이나 논저를 인용한 예는 딱 1건이 있다(김한성, 『김기림 문학 연구 - 비교문화적 관점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4). 여기서 Karen Laura Thornber, “Empire of Texts in Motion: Chinese, Korean, and Taiwanese Transculturations of Japanese Literature”,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70 No. 2, Cambridge: Harvard UP, 2009를 인용했다. 그런데 김

권에서 행해진 한국학 연구나⁵⁰⁾, 심지어 한국에서 행해지는 다른 언어의 문학 연구도 이론적 참조 대상이 아니다. 권나영의 책이 식민지 조선을 ‘사례’로 제시하고 한국의 연구들을 ‘소개’한다는 점을 문제 제기했지만, 한국에서의 한국문학 연구는 미국에서의 한국문학 연구를 아예 참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는 언어의 문제 때문이 아니다. 한국에서 생산되는 한국문학 관련 상당수의 학위논문과 소논문들은 영어 ‘원서’들을 직접 인용한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한국문학 연구를 전혀 참조하지 않는 이유는 미국의 한국문학 연구를 참조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가르침과 배움은 지배-피지배 관계라고 할 때, 한국의 한국문학 연구는 서구의 ‘기타’ 학문들에서는 많은 것을 배우지만, 서구의 ‘한국문학’ 연구는 참조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러한 중심-주변 논리와 연결되어 있다.

지금까지 식민지(인)과 본국(인) 사이의 “트랜스콜로니얼”한 “번역된

한성은 하버드에서 석사학위를 하였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라 볼 수 있다. 검색의 용이성 때문에 서울대와 고려대로 한정했지만, 다른 대학들도 별반 사정이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는 해외 한국문학 저서들의 연이은 번역으로 인해 사정이 달라지지는 않을까 기대해본다. 테드 휴즈, 『냉전시대 한국의 문학과 영화』, 나병철 옮김, 소명출판, 2013; 이진경, 『서비스 이코노미』, 나병철 옮김, 소명출판, 2015 등을 주목할 수 있다.

이렇게 외국에서의 한국학 연구성과들을 참조하지 않는 것은 이 책과 연구대상을 공유하는 식민지 말기, 일제말기에 관한 연구서들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이 글의 각주 35번에서 제시하였듯이, 권나영의 박사논문과 동일한 대상을 연구한 한국의 논저들도 권나영의 박사논문을 전혀 참고하지 않았다.

- 50) 황호덕, 『외부로부터의 격발들, 고유한 연구의 지정학에 대하여: 한국현대문학연구와 이론, 예비적 고찰 혹은 그래프, 지도, 수형도』, 『상허학보』 35, 상허학회, 2012 참조. 이에 따르면 한국문학 전문 학술지인 『상허학보』와 『민족문학사연구』에서 20회 이상 인용된 외국학자들은 “가라타니 고진, 게오르그 루카치, 피에르 브리디외, 미셸 푸코, 발터 벤야민, 슬라보예 지젝, 테오도르 아도르노, 사카이 나오키, 강상중”이다. 즉, 일본 내지는 ‘서구’의 ‘인문학’ 학자들만이 인용되지 외국(문)학 전공 학자들의 논저는 인용되지 않는다.

조우”를 다루는 『친밀한 제국 - 한국과 일본에서 협력과 식민지 근대성』과의 ‘트랜스콜로니얼’한 ‘번역된 조우’를 시도해보았다. 이 저서가 강조한 것처럼, 표면적으로 ‘친밀’하게 보이는 ‘협력’ 대상들도 그 안에 강압과 타자화가 가득하고, 이것이 본국과 식민지 사이에서 폭력적인 관계 속에 서로에게 매료된다는 분석이 현재에도 유의미하다는 것은, 이러한 시각을 현재 한국에서의, 그리고 미국에서의 한국문학 연구라는 학문장과 이 책 자체의 논리에 대입해 보았을 때도 입증된다. 수사적으로 표현하자면, 어떤 의미에서는 여전히 ‘친밀한 제국’에서 온 『친밀한 제국』을 또 다른 ‘친밀한 제국’에서 읽고 있는 것이다.

정리해보면, 이 책은 식민지 조선의 텍스트를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이와 관련된 한국에서의 한국문학 연구는 부차적인 위치에 놓이며(마치 식민지 조선이 본국 일본에 비해서 부차적인 위치에 놓이듯이), 오히려 ‘서구’의 한국문학 연구나 기타 연구들과의 연속선상에 자신을 위치시킨다. 그러면서 ‘보편’으로 매개되기 위한 이론을 종종 과잉으로 사용하며 식민지 조선의 텍스트들은 이 이론의 한 ‘사례’ 연구, 즉 ‘특수’의 자리에 놓는다.(마치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들을 일본 본국인들이 ‘토착 정보제공자’로 대하듯이) 그리고 취사선택된 사례들을 보다 큰 상위개념으로 분류하거나 다른 사례들과의 차이를 탐구하지 않는다. 반면에 한국의 한국문학 연구는 자신의 연구대상을 바탕으로 ‘이론’이나 ‘보편’의 단계로 나아가서 한국의 다른 문학 연구들과 대화하지 않으며, ‘서구’의 ‘이론’이나 ‘보편’을 의심하려는 노력도 부족하다. 또 미국에서의 한국문학 연구를 전혀 참조하지 않는다. 둘 다 어떤 측면에서는 “친밀한 제국”의 위치에서, 서로를 대한다.

이러한 ‘불화’의 상황은 어떠한 ‘실재’를 드러내는가?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책의 주제이기도 한, ‘협력’의 문제는 어떻게 제기될 수 있을

까? 한국에서의 한국문학과 미국에서의 한국학의 ‘불화’는 이 둘의 보편에 대한 욕망과 관련된다. 한국에서 서구 이론을 통해서 분석의 깊이와 ‘보편’과의 연결을 욕망하는 것과 서구에서 서구의 이론을 한국의 사례를 통해서 재구성하려고 욕망하는 것 자체는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그러나 그 과정 중에 한국의 한국문학 연구와 미국의 한국학 연구는 서로를 무시한다. 전자는 후자를 철저하게 없는 것으로 치부하며, 후자는 전자를 현지 정보제공자의 위치로 소환한다. 서로는 서로의 연구를 무시하는 것을 통해서만, 스스로의 (중심을 욕망하는 주변이라는)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한국에서의 한국문학 연구가 미국에서의 한국학을 무시해야지만, 한국이라는 ‘특수’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자신을 승인하고 이것이 보편과 연결되게 하는 매개자로서의 위치를 자임할 수 있다. 반면에 미국에서의 한국학 연구는 한국에서의 한국문학 연구를 무시해야지만, 한국이라는 ‘특수’ 사례들을 바탕으로 서구 보편을 재구성하는 전문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구’와 한국에서의, 그리고 다른 지역과의 한국(문)학 연구는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가.⁵¹⁾ 물론 지금도 ‘학진’이라는 국가기관의 평가시스템의 강력한 영향 아래, 다기한 ‘국제’ 한국학 학술대회나 프로그램들로 ‘협력’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이 식민지와 본국 사이의 ‘협력’을 다루면서, 이러한 ‘협력’ 배후의 폭력들과 내재한 권력관계들을 예리하게 논파한 것을 떠올려 봐야 한다. 지금 한국문학과 관련된 국제대회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권력관계는 앞서 언급한 한국과 미국에서의 한국문학 연구들의 서로 ‘부인’하거나 ‘부차화’하는 관계에서

51) 물론 협력이 과연 필요한 일인가라는 반문도 가능하다. 그러나 둘의 연구대상이 같고, 서로에게서 배울 것이 분명 있고, 타자와의 만남은 윤리적 요청이라는 점에서 협력은 요구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도 잘 드러난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의 한국문학 연구자체에서 ‘서구’와 한국은 ‘협력’하고 있고(서구 이론과 한국 사례라는 점에서), 이는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서구’와 다른 지역들과 한국에서의 한국(문)학 연구사이의 협력이 일방적이고 가시적인 협력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이고 평등하고 생산적인 협력일 수 있겠는가이다. 이에 대해서는 따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지만, 이것의 전제가 되는 서로의 시각 차이나 제도가 어떻게 극복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기본 원칙만을 확인하고자 한다.

미국에서의 한국문학 연구가 ‘아시아학’ 또는 보다 큰 범위의 학문의 하나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서구 보편’으로 환원되지 않는 ‘한국(문)학’의 특수성을 부각하려는 노력이 이 책은 보여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서구이론-비서구사례, 즉 보편과 특수라는 이항과 위계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그러나 이는 온전히 이 책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여전히 ‘특수’에만 집중하고 있는 한국에서의 한국문학 연구의 문제점은 아닌지 의심할 필요가 있다. ‘보편’을 발화하기 위해서 ‘서구’의 논의들의 문제의식 속에서 대화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이러한 서구/보편 - 한국/특수라는 이항을 작동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야한다.⁵²⁾ 물론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 한국을 연구할 때, 또는 다른 ‘비서구’국가를 연구할 때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사항이다. 그러나 훨씬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에서의 한국문학 연구자들이 보다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52) 여기서 ‘보편’이란 보편 그 자체라기보다는, ‘한국문학’을 연구한다고 했을 때, ‘한국문학’이라는 경계를 넘어서 다른 언어권 문학들과 대화하며 이를 일반화할 수 있는 층위를 의미한다. 한국문학에서는 조동일의 연구들만이 그러한 ‘보편’층위에 대해서 사유하고 발화하는 듯 보인다. 조동일, 『세계문학사의 전개』, 지식산업사, 2002.

‘아시아학’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의 한국문학 연구들과 한국에서 ‘한국문학’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자들의 ‘협력’을 통해서만 ‘후발주자’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서구 보편’이라는 폭력성을 해체하고 새로운 ‘보편성’ 또는 보편성이라는 틀 자체도 문제제기하면서 어떠한 ‘공통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기초적으로는 연구에서 서로를 핵심적으로 참조해야 한다. 즉, 서로에게서 배우면서 동시에 ‘중심’으로서의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참조할 때도 어떠한 시각과 관계에서 참조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의심해야 한다.⁵³⁾ 동일한 대상으로 연구를 할 때,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들을 참조하고 연구사 속에서 이의 의미를 부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또한 한국에서의 한국문학 연구자들이 보다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둘째로는 더 많은 상호교류가 필요할 것이다. 학부, 대학원생, 교강사 차원에서 수업, 세미나, 강의를 서로 교류하고 이를 정례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기적인 특강이 아니라 1학기나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학부생, 대학원생, 교강사를 교환하는 일이 필수적일 것이다. 서로의 문제의식을 온전하게 공유하고 장기간 서로 ‘대화’하며 서로를 변화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이는 서로의 제도가 강

53) 랑시에르는 서구 역사에서 ‘불화’의 역사를 분석하면서, 이는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두 집단 사이에 인간학적, 정치적 위계에서 비롯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위계는 한 집단이 다른 집단과 대화 상대자가 아니라고 여기게 하는데, 이는 로마시대 귀족·평민이나 19세기 자본가·노동자들의 불화에서 잘 나타난다. 이는 오늘날 ‘서구’에서의 논의와 한국에서 논의들 사이의 중층적인 관계에서도 그대로 들어난다. 권나영의 책이 한국연구들을 ‘대화’의 상대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나, 한국의 한국문학연구가 미국의 한국학 연구를 아예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것이 바로 이를 의미한다. 이러한 불화는 오늘날과 같은 합의민주주의체제 하에 ‘제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연히 잔존해 있다. 결국 이러한 불화를 ‘승화’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의 ‘공통적인’ 것과 공통적이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으로부터 탈동일시/탈정체화하여 공통의 것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자크 랑시에르, 『불화 - 정치와 철학』, 진태원 옮김, 길, 2015 참조. 동북아적 표현으로는 ‘역지사지’를 통해, 타자 - 되기를 노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넘어설 수 있게 할 것이다.

서로 ‘중심’에 서서 서로를 ‘주변화’하는 것을 넘어서, 진정한 학문의 탈식민과 국가 단위를 넘어서는 학문 공동체를 꿈꾼다. 이를 위해서는 타자를 환대하고, 타자의 타자성으로 하여금 ‘우리’를 반성하고 변화하는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⁵⁴⁾

54) 데리다는 ‘무조건적인 환대’를 주장하며, 타자의 타자성을 보존하며 그를 환대하는 것의 의미를 논한다. 자신의 권력을 포기하고 타자를 향해 열릴 때만이, 진정으로 타자를 환대할 수 있다. 자크 데리다, 『환대에 대하여』, 남수인 옮김, 동문선, 2004, 89~104쪽 참조.

참고문헌

- 권명아, 『무한히 정치적인 외로움 - 한국 사회의 정동을 묻다』, 갈무리, 2012.
- _____, 『식민지 이후를 사유하다 - 탈식민화와 재식민화의 경계』, 책세상, 2009.
- _____, 『역사적 파시즘 - 제국의 판타지와 젠더 정치』, 책세상, 2005.
-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1』, 민음사, 2002.
- 김계자, 『근대 일본문단과 식민지의 문학자 - 김사량과 룡잉종을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22, 경원대 아시아문화연구소, 2011, 1-24쪽.
- 김병걸·김규동 편, 『친일문학작품선집 1,2』, 실천문학사, 1986.
- 김상환·홍준기 엮음, 『라깡의 재탄생』, 창작과비평사, 2002.
- 김석희, 『식민지인의 가책과 폭로의 구조 - 김사량 『빛 속으로』를 중심으로』, 『일어
일문학연구』 71권 2호, 한국일어일문학회, 2009, 255-272쪽.
- _____, 『식민지인의 윤리적 분열과 내러티브: 김사량 『빛 속으로』에서 『천마』로』,
『일본문화연구』 35, 동아시아일본학회, 2010, 19-36쪽.
-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 김윤식, 『일제 말기 한국 작가의 일본어 글쓰기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 김재용 외, 『친일문학의 내적 논리』, 역락, 2003.
- 김재용, 『협력과 저항 - 일제 말 사회와 문학』, 소명출판, 2004.
- 김종영, 『지배받는 지배자 - 미국 유학과 한국 엘리트의 탄생』, 돌베개, 2015.
- 김주리, 『동화, 정복, 번역 - 한국 근대 소설 속 혼혈 결혼의 의미』, 『다문화콘텐츠
연구』 3, 중앙대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0, 37-64쪽.
- 김지영, 『제국과 식민지, 일상에서의 혼종/혼혈과 분열증 - 장혁주 『우수인생』, 김
사량 『빛 속으로』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41, 한국현대문학회,
2013, 309-342쪽.
- 김철·신형기 외, 『문학 속의 파시즘』, 삼인, 2001.
- 김한성, 『김기림 문학 연구 - 비교문화적 관점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4.
- 김혜연, 『김사량 작품 연구: 일제 말기 이중 언어를 중심으로』, 중앙대 박사학위논
문, 2011.
- 나병철, 『트랜스내셔널한 역사에 응답하는 한국의 문화와 정치 - 『냉전시대 한국의 문
학과 영화』 비판에 대한 비판』, 『사이』 18, 국제한국문화문화학회, 2015,
189-220쪽.
- 마이클 D. 신, 『미국 내 한국학 계보』, 『역사비평』 59, 역사비평사, 2002, 76-98쪽.
- 박광현, 『경성좌담회 다시 읽기』, 『일본연구』 62, 한국외대 일본연구소, 2014, 49-69쪽.

- 박유하, 『제국의 위안부』, 뿌리와이파리, 2013.
- _____, 『제국의 위안부』, 뿌리와이파리, 2015(제2판).
- 박중명·김주영, 『식민지 지식청년의 “자기윤리” -김사량의 『빛 속으로』를 중심으로』, 『일본어교육』 55, 한국일본어교육학회, 2011, 227-237쪽.
- 방민호, 『일제 말기 한국문학의 담론과 텍스트』, 예옥, 2011.
- 백철, 『조선신문학 사조사』, 수선사, 1947.
- 서영인, 『서발턴의 서사와 식민주의의 구조』, 『현대문학이론연구』 57, 현대문학이론학회, 2014, 151-174쪽.
- 손유경, 『고통과 동정 - 한국 근대소설과 감정의 발견』, 역사비평사, 2008.
- 신지영, 『부/재의 시대』, 소명출판, 2012.
- 오태영,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조선 로컬리티 - 식민지 후반기 여행 텍스트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와타나베 나오키 외 편, 『전쟁하는 신민, 식민지의 국민문화 - 식민지 말 조선의 담론과 표상』, 소명출판, 2010.
- 윤대석, 『식민지 국민문학론』, 역락, 2006.
- 이동재, 『김사량 문학 연구: ‘번역자 위치’와 ‘욕망’을 중심으로』,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2013.
- 이익성, 『일제 암흑기 황순원의 창작 단편소설 연구』, 『동아시아문화연구』 61,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5, 109-128쪽.
- 이준식, 『일제 강점기의 대학 제도와 학문 체계 - 경성제대의 ‘조선어문학과’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61, 한국사회사학회, 2002, 191-218쪽.
- 임영봉, 『이광수 문학과 식민지 근대 체험 - 초기 단편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3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3, 245-264쪽.
- 임종국, 『친일문학론』, 평화출판사, 1966.
- 임형모, 『욕망의 간접화와 형이상학적 욕망의 실체 - 김사량의 『천마』와 『빛 속으로』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기술』 7, 단국대 한국문화기술연구소, 2009, 109-123쪽.
- 전설영, 『김사량 문학 연구: 주체의 이동을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8.
- 정종현, 『동양론과 식민지 조선문학』, 창비, 2011.
- 조동일, 『세계문학사의 전개』, 지식산업사, 2002.
- 조진기, 『1940년대 문학연구의 성과와 과제 - 일제말기 친일문학 논의를 중심으로』, 『우리말 글』 37, 우리말글학회, 2006, 47-82쪽.
- 진태원, 『비판적 사유의 미국화란 무엇인가』, 『황해문화』 85, 새얼문화재단, 2014.12.

211-230쪽.

차승기, 『반근대적 상상력의 임계들』, 푸른역사, 2009.

최현희, 『문화사로서의 한국학의 조건과 사명 - 휴즈의 『냉전시대 한국의 문학과 영화』를 통해 본 미국 한국학의 단계들』, 『사이』 17, 국제한국문화문화학회, 2014, 439-468쪽.

한수영, 『친일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 2005.

홍희정, 『김사랑의 일본어 소설 고찰: 『빛 속에서』를 중심으로』, 한국외대 석사학위논문, 2012.

황호덕, 『외부로부터의 격발들, 고유한 연구의 지정학에 대하여: 한국현대문학연구와 이론, 예비적 고찰 혹은 그래프, 지도, 수형도』, 『상허학보』 35, 상허학회, 2012, 53-115쪽.

_____, 『벌레와 제국』, 새물결, 2011.

후지네 마유코, 『金史良의 『光の中に』研究: 人物を中心に』,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멜리사 그레그·그레고리 시그워스 편저, 『정동 이론』, 최성희·김지영·박혜정 옮김, 갈무리, 2015.

아시스 난디, 『친밀한 적 - 식민주의하의 자아 상실과 회복』, 이옥순·이정진 옮김, 창비, 2015(개정번역판).

자크 데리다, 『환대에 대하여』, 남수인 옮김, 동문선, 2004.

자크 랑시에르, 『불화 - 정치와 철학』, 진태원 옮김, 길, 2015.

에드워드 사이드, 『오리엔탈리즘』, 박홍규 옮김, 교보문고, 2015(개정증보판).

레이 초우, 『디아스포라의 지식인 - 현대 문화연구에 있어서 개입의 전술』, 장수현·김우영 옮김, 이산, 2005.

지크문트 프로이트, 『정신분석강의』, 홍혜경·임호인 옮김, 열린책들, 2004.

Nayoung Aimee Kwon, *Intimate Empire: Collaboration & Colonial Modernity in Korea & Japan*,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books, 2015.

_____, "Translated encounters and empire: Colonial Korea and the literature of exile." PhD diss., UCLA, 200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051416401&code=910402&nv=stand, 2016.1.5. 경향일보 기사.

Abstract

Reading *Intimate Empire* written in an ‘Intimate Empire’ in another ‘Intimate Empire’

Chong, Ki-In (Seoul National University)

Nayoung Aimee Kwon's *Intimate Empire: Collaboration and Colonial Modernity in Korea and Japan* analyzes postcolonial encounter between Korea and Japan with the perspective of "intimacy." This essay will suggest the implication and limitation of Kwon's approach by reviewing her work in the context of the studies of Korean literature in the late Japanese empire period. Kwon's study is distinguished from the previous studies, which deny "intimately shared" history between Japan and Korea by underlying only the repressive reality of the Japanese Empire, or which place the repressive reality and the intimate relationship in parallel. By analyzing the intimacy between Korea(n) and Japan(ese), Kwon successfully explores complex, ambivalent, and contradictory relationship between them, and sheds anew light on the historical aspects. The book demonstrates well that the "intimacy" in the context of "trans-colonial" encounter between Japan(ese) and Korea(n) has the complexity of conflicts and confusion under the multi-layered repression and appeasement.

By tracing "affect" in various examples, including young Korean students' affection towards Japanese and their despair (chapter 1), Japanese critics' ambivalent attitude towards Kim Sa-ryang, Akutakawa Prize's nominee, and Kim Sa-ryang's reaction to the Japanese critics (chapter 3), the complicated characters in Kim Sa-ryang's novel (chapter 4), the ambivalent meaning of colonial Koreans' writing in Japanese (chapter 5), the repression inherent in the format of round table discussion and the enforced laughs of colonial Koreans, which were used ultimately to promote propagate the idea of 内鮮一體 (Japan-Korea as one) (chapter 7), the study illustrates well how the 'intimacy' on the surface is complicatedly related to underlying repression of the empire. However, the analysis has its limits in that all the explanations are reduced to the linear relationship between colonial Korea and the empire.

Given that the research was conducted in the 'intimate empire,' the United States,

this study allows us to view the postcolonial encounter between Korea and Japan, from the perspective, which is free from the national boundaries; but, on the other hand, the study includes the excess of theories, and uses the studies of Korean literature and texts of the colonial Korea only for the purpose of disputing the concept of "western universality." This, in a sense, seems to repeat the unequal power relation between colonial Korea and Japan, which the author tried to criticize, in the context of the unequal power relation between the Korean academia and the US academia. Admittedly, the relation between Korea's Korean literature studies and studies in the frame of Korean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is more complex, and cannot be reduced to the relation between colonies and empires. Sometimes even the Korea's Korean literature claim its position as the 'center' or the 'empire.' In order to 'collaborate' between Korean studies in Korea and the U.S, 'we' have to welcome others with hospitality and try to self-reflect ourselves by the otherness.

(key words: intimate empire, colony, empire, postcolonial, Korean studies, Korean studies in the U.S., collaboration of Korea and Japan, resistance, Nayoung Aimee Kwon, disavow, Jaques Lacan, affects, hospitality)

논문투고일 : 2016년 1월 11일

심사완료일 : 2016년 1월 30일

수정완료일 : 2016년 2월 11일

게재확정일 : 2016년 2월 17일